

#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6

## 로마서 15:29-16:7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5:29-16:7에 관한 세션 16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땅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놓지 않은 터에 터를 닦아 다른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로마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페인에 진출하고 싶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스페인 선교에 대해서는 24절에서 소개했고, 28절에서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는 도중에 있었고, 내가 이곳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도중에 멈춰서 당신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장소로 갈 예정이라면 순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기, 저기, 앞뒤로 가지 마세요. 또한, 특히 바울은 동료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모두를 위한 이 항해에 대한 요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팀사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목사들을 멘토링하고 이를 배가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그들을 다른 곳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특정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그리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가 있었고 빌립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라틴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로마로 갈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라틴어가 아직 없었다면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동안 라틴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서부 지중해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서부 스페인에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라틴어를 사용하거나 통역사에 의존할 수 있어야 했고, 아마도 로마에서 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에는 유대인 연결이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꽤 나중에, 그러나 우리는 1세기 초에 스페인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개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5절과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봅니다. 제 생각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도 이 내용이 꽤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ul은 정말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문화적으로 확장시킬 것이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거기에서 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24절과 28절의 스페인 선교는 그 사이에 언급된 예루살렘 선교의 틀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내가 가는 길에 당신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 스페인 사절단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암묵적인 지원 요청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대를 나타내는 것은 영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환대를 나타내는 것은 큰 영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암묵적인 지원 요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 지원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그와 그의 동료들을 자신들의 길로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의 누군가가 그런 비전을 발견하면 통역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획기적인 임무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신자들은 이 획기적인 스페인 선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부 지중해는 로마의 문화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가야, 마케도니아, 갈라디아의 동방 교회들과 도끼 아시아의 교회들도 그가 다음에 갈 예루살렘 선교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또한 동방 교회가 재정에 있어서 바울의 성실성을 신뢰한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들은 나를 신뢰합니다. 당신도 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ul은 재정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누구도 우리를 반대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각 교회 대표자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선교.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한 로마로 오기까지 오래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행을 시작한 후에야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각 성에서 그에게 예언하기를 그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1531년 초에 유대의 불순종한 자들로부터 자신이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글쎄, 그의 반항 언어는 더 일찍 사용되었습니다. 1장 30절과 2장 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는 10장 21절과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에서 자기 백성을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곳에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적어도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곤경에 빠졌고 아마도 로마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자세한 부분인 우리 이야기, 사도행전의 목격자 자료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길게 주장했는데, 우리는 누가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크는 이것을 보았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그 때문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로마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그의 사역, 그의 디아코니아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같은 단어나 인식, 그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같은 단어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니면 성별된 자들,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로 번역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26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의 수집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땅 끝을 이야기할 때, 이집트 남쪽의

아프리카를 이야기할 때는 이집트 남쪽의 아프리카 전체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는 네로 에 왕국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그가 그곳의 여왕을 특정 왕국과 정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켄다카 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동쪽의 파르티아인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로마인들도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누비아, 흑인 아프리카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리아를 정복했지만 아직 독일군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계속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브리튼족을 정복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영국의 일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선교가 시작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고 돌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 일에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 11:30, 아가보와 몇몇 다른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기근이 임할 것을 예언한 후, 행 11:30,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기근 구제를 전하기 위해 파송됨. 세계. 안디옥도 이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12시 25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올 거예요. 누가 설명하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이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이미 하고 있던 일 중 일부를 위해 따로 떼어 놓은 사역자들입니다. 곧 그들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사역,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 사역과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사역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의 기둥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Pillar는 실제로 그 당시 유명하거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영어에서 커뮤니티의 기둥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고 바울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아스포라 교회의 매우 중요한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1526년에 그는 아가야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 일을 기꺼이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특히 고린도후서에서 아가야 교회가 반드시 이 일을 하는 것을 완전히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어떤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 아, 그는 자기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는 그들 중 몇몇이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쎄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그의 후원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돈을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그는 아가야 교회들에게 준비를 위해 돈을 따로 떼어 놓도록 촉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아주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가야 교회 여러분이 이 헌금으로 헌금하겠다는 증거로 인해 마게도냐 교회 들이 크게 분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시민 경쟁이 큰 일이었고 지역 경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도를 보냅니다. 왜냐면 폴이 조금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 말은,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하기 위해 디도를 보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쟁자들 때문에 현재 자신과 이상주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아가야 교회들이 헌금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좀 빈약해 보이지만 사도행전 21~3장에서는 바울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겨울을 보냅니다. 상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티투스가 앞서 나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15, 26장을 쓸 때 아가야 교회가 실제로 이 문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분명히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왔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도 분명히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장 9장 2절과 4절에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이 대표자들에 대해 봅니다.

마케도냐 베뢰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입니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빌립보에서 왔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20장 6절에 이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일 수도 있다.

사도행전 20장과 4절에도 컬렉션에 대한 다른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언급할 이유로 컬렉션을 컬렉션이라고 언급하지 않지만 다른 대표자들인 두기고 와 드로비모는 분명히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서부의 그 지방과 갈라디아에서도 왔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그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이 헌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과 4절에는 더베 사람 가이오와 사도행전에서 이미 그 지역 출신이라고 언급한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만, 여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방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지방의 이름이며 사도행전에 묘사된 지역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프리기아인, 심지어 리케아인 이지만 이 지역의 역사에 전문가인 학자들, 고전 학자인 바바라 레빅과 스티븐 미첼은 모두 바울이 남부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대다수의 견해이며, 나는 바울이 남갈라디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수집과 화해. 컬렉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이 대다수인 지역의 대표자들이 유대 지방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있습니다(11:13, 15:18-29). 이 문맥에서는 예루살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섬기는 이방인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뭔가를 전달할 것입니다. 바울은 빛에 대한 의무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사명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빛을 졌다고 말했습니다(롬 1:14). 이제 그는 15:27에서 이방인들이 바울의 백성에게 빛진 것에 대해 말합니다. 상호주의는 주요 문화적 가치였으며 후원자는 명예롭게 보답해야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줬는데 당신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모욕적인 일이었지만, 시민 사업을 위해 기부하면 명예 비문 등을 붙여 기려야 했습니다. 상호주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영적인 문제로 이방인을 섬겼다면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문제나 일반적으로 번역된 물질적인 문제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빛진 것이 있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유대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희에게 양식을 주었으니 물질적으로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즉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방식은 *laiter geo*이며, 이는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Paul은 그것을 더 넓은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laiter geo*가 관련하여 사용된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례를 통해 지역 사회에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공공 예배를 가졌던 명예 비문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것은 종종 번역됩니다.

때때로 이것은 필수 기부였습니다. 그들은 "오, 당신은 부자이군요. 우리 지역 사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는 것이 어때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때로 '글쎄요, 작년에 기부했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부자입니다. 올해도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일 때도 있었지만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경우도 많았고, 그 대가로 명예를 얻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요점은 그들이 당신을 영적으로 섬겼으니 이제 다시 그들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복음화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세상의 어떤 부분은 복음화되었고, 다른 부분도 복음화되었고, 이제 그들은 재복음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글쎄요, 한 가지 제안은 고대 지중해 세계 전역에 사람들이 있었고 성인 유대인 남성이 예루살렘 성전

유지를 위해 디드라크마, 두 드라크마 세금, 반 세겔 세금, 미안하지만 반 세겔 세금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로 성전이 너무 풍성해져서 그들은 단지 이 금덩굴을 만들고 성전에서 그것을 점점 더 길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로마 세계 전역의 유대인들은 이 일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의 다른 지역인 파르티아에서도 역시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에 평행선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있습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아이디어는 다릅니다. 이것은 세금은 아니지만, 이 돈과 함께 디아스포라 교회의 대리인들을 어떻게 존경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배웠을 수 있는 특정 절차가 있었고 그의 동료들은 교회, 음, 아니, 죄송합니다, 회당, 회당 공동체가 이 성전세를 위해 기부하고 있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을 관찰함으로써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기부금을 본 방식과 관련하여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사야 45장 14절, 이사야 60장 6절부터 10절, 이사야 66장 20절 등에서처럼 이방인의 종말론적 헌금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 적어도 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그들의 부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러 올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거기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림들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상상한 것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방인 신자들이 모은 이 컬렉션은 이방인 신자들의 헌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시기나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유대 종파에도 이방인 개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운동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로마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말했듯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 즉 그의 백성을 시기하게 만드는 단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8에서 바울 자신은 상징적으로 그 헌금에 인을 찍을 것입니다. 인감은 업무문서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글쎄요, Paul은 아무 것도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Paul은 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자신만의 고유한 인장 표시가 있는 인장 반지를 갖고 뜨거운 왁스로 무언가를 봉인한 다음 왁스를 칠하는 동안 인장을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웠어요. 그리고 건조된 후에는 그 표시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봉인을 깨뜨린다면 그들은 다시 봉인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봉인된 제품이 열렸을 때 원래 봉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로 다시 봉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장반지나 당신의 인장반지, 또는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좋아요, 내용물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고, 그것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다양한 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전체에 이방인들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이방인들을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까?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 그 답의 일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제목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자주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로움에서 구원받은 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에베소에서 많은 고난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들의 기도로 인해 자신이 앞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 장 19절과 빌레몬서 22장에서 그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노라”고 말씀합니다. 배송받고 다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25, 이전 시대에 그는 단지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이 널리 퍼져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 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바울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로마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을 받아들였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몇몇 훌륭한 학자들은 이것을 의심합니다. 학자인 내 친구들 중 일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컬렉션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헌금은 행 24:17에서만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누가는 분명히 그것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이라는 점에 그다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할 당시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화해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en Witherington과 나, 그리고 FF Bruce가 그의 사도행전 주석 제3판과 다른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글을 쓰고 있다면, 누가가 글을 쓰고 있는 당시 이방인 교회들과 비문제 사이의 화해에 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음, 함정이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대 웅변가들의 표준적인 주장 중 하나는 일이 잘못되어 비난을 받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썄요,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떠나기 전에 내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의 재판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에서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침묵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루크가 건너뛴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려하면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논증은 특히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그는 바울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행 20:16). 그는 그곳에 도착하여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비교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기는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여러 번 암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주장 중 일부,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청문회에서 한 주장 중 일부, 즉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온 지 며칠이 지났는지에 대해 증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증명하도록 요청받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으로 논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아마도 바울보다 먼저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보내졌고, 그 직후 야고보는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페스투스가 아마도 몇 년 후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을 때, 현 대제사장은 이를 이용하여 야고보와 다른 몇몇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행한 일을 반대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로마 총독이 와서 그 대제사장을 폐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에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 적대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물을 거부한다면 실제로는 '폴, 이제 너랑은 끝났어'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교회와 어떤 교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들의 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사도행전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일을 묘사하는 방식과 바울의 편지가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볼 때 만약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컬렉션은 바울이 바라던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감동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안이 거부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거절당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후에 로마에 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의 환대가 그에게 새 힘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휴식이나 수고로부터의 구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언어는 15:32에 있습니다.

로마는 그의 일을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18, 고린도의 군대는 바울과 고린도인들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그 때에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7:13, 디도는 고린도인들 가운데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빌레몬서 7장, 빌레몬의 환대는 신자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15장 33절에서 결론짓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글썄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 사이의 분쟁을 생각할 때 평화의 하나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지의 끝 부분에서 그는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인지 말할 것입니다.

순두게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동료인 클레멘트에게 그들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나의 본을 따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20-21,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화는 많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평화 옹호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을 인용했는데, 힐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랍비들이 평화가 위대하다는 말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평화가 그토록 위대한지 설명할 것입니다.

물론 로마제국에서도 아우구스투스가 확립한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서 16장. 마르시온에게 사과를 드린 후 마르시온은 로마서 14장을 끝낸 것 같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이 원래 에베소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해리 갬블(Harry Gamble), 예일(Yale) 및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정된 로마서에 우연히 붙은 사람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울처럼 시작됩니다. 바울은 시간을 내어 여러 단계에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고대 편지들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때로는 긴장을 풀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천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글쎄, 종종 추천서는 편지의 전달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피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천서는 동료들에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하직원에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추천받은 사람보다 높은 계층의 사람일 수도 있고, 추천을 받았지만 동료들과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추천받은 부하직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피비에 대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때로 그들은 내가 추천한 사람에게 증명하라, 내가 당신에게 추천한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증명하라,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나의 간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얼마나 좋은 편지를 썼는지 증명해 보이곤 했습니다.

가끔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도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신세를 지는 거죠. 나는 보답할 것이다. 바울은 빌레몬서 19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19장에서 그는 추천서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다른 일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나에게 빛을 졌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나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고대 자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에서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한 지점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언급하지 말고 언급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최대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언급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추천서가 큰 이슈였죠. Cicero는 추천서와 다른 편지로 구성된 그의 편지 중 하나의 전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정말 좋은 글을 썼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그것을 읽고 "와, 그가 모든 사람에게 말할 다른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완전히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추천서를 매우 창의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고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추천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추천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피비는 누구입니까? 글썄요, 피비는 여행하는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와 코린트 사이에는 많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차피 여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Cancri에서 일하고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게크리는 코린트의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코린트 지협 동쪽 부분에 있는 에게해 항구인 칸크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LeHaim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고린도의 북서쪽인 지협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와 항구 도시가 양쪽에 있는 상업 공동체라는 축복과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보 부자 계층, 즉 막 부자가 된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해방된 노예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부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 종교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당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칸크리(Cancri)에 이집트 신인 세라피스(Serapis)를 위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병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 고린도에 대하여 속담에 누구든지 고린도로 향해하는 것은 아니니라 하는 말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맥락은 적어도 때로는 고린도의 매춘 산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Strabo는 옛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의 공동 매춘부 수천 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크로-코린토스의 발굴 결과는 그곳에 수천 명의 매춘부가 있었을 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춘의 수호신인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춘과 성적 부도덕에 대한 고린도의 평판은 옛 고린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쯤에 파괴된 후 재건되었습니다.

Lucius Mummius 와 Julius Caesar는 그것이 기원전 44년경에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확히 옳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식민지로 재건되어 신코린토스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새 고린도는 매춘과 성적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 중 일부를 고린도인들에게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항구였습니다. 음, 양쪽에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상업도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를 달성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비스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업가였을 피비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16장 1절과 16장 2절에서 주님을 위한 그녀의 사역에 대해 읽습니다. 16.2부터 시작하여 다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전립선 염(Prostatitis) 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의 조력자 또는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녀를 환대하고 가는 길을 도와줄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전립선염을 돕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염은 은인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것은 후원자였지만, 특히 공화국 시대에 고객과 함께하는 후원자에 대한 기술적인 로마식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원자를 따라다니며 대중에게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후원자처럼 우리가 영어로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후원자입니다.

후원자는 조직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회를 위해 집을 열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이겠죠.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집에서 꽤 규모가 큰 가정교회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녀가 사업가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로마서 12:8에서 서로 다른 은사를 나열하는 동일한 동사에서 파생된 것과 연관시킵니다.

거기에는 경영상의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녀가 사업가라면, 그녀가 관리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정 교회를 갖고 있고, 그녀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에게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인사. 다른 하나는 이 슬라이드에 16.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녀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의미는 훨씬 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위해 저장하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12장 7절의 은사인 섬기는 은사인 디아코노스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글의 다른 부분에서 명사 제목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마도 그것은 봉사 하거나 사역하는 누군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함은 15장과 8절에서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아주 최근에 15장과 25절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바울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 6장 4절, 11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바울에게 적용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바울의

동료들에게 적용되며, 때때로 이 직분은 감독자들과 구별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1과 디모데전서 3:1-13. 그래서 바울 문헌에서는 감독자와는 별개의 직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히 그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다른 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섬기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 좀 더 흥미로운 여성에 대해 읽으면서 이에 대해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바울이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추천했다면 확실히 그녀는 편지를 설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편지 전달자가 편지의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달자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대에 이에 대한 다른 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바울 이후로 로마서나 로마서의 일부를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뵈베였을 것입니다. 여성 후원자.

여성 고객은 현재 추산되며 전체 고객의 약 10%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교육을 받는 여성도 소수였습니다.

상류층 가정에서도 여성은 14세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철학파에서는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사학파에서는 예외가 거의 없었다.

소시 피트라는 철학자였나요 아니면 연설가였나요? Socipitra , Aspasia 가 있습니다 . 실제로 수세기에 걸쳐 교사로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인의 맥락에서 그들은 소년들처럼 토라를 암송하도록 배우면서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회당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토라를 깊이 공부하는 법을 실제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2세기 후반에 유대에서 베루리아(Beruria) 라는 이름의 한 여성의 사례를 알고 있는데, 그는 랍비의 딸이자 국내 할라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랍비 메이어(Rabbi Meir)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토라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료에서 그녀는 다른 종류의 할라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외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랍비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토라를 암송하도록 배웠고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교육을 받은 여성은 없습니다.

사실 필로가 여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앞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유대 철학자 요세푸스(Josephus)는 역시 1세기 후반인 1세기에 저술한 글에서 여자의 증언은 그들의 성별이 경솔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법과 로마법은 모두 여성의 증언의 타당성이나 여성의 증언의 신뢰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는 고대에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보인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여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여성처럼 보이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업가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사업가이고 돈이 많은 여성인 것 같습니다. 폴은 그 편지를 그녀에게 맡기고 자신을 위해 그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16장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과 로마의 많은 지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들 모두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들 중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가 로마에 그들 중 상당수를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와 고린도 사이, 그리고 로마와 나머지 동부 지중해 세계 사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등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쫓겨난 이들 중 상당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인 고린도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은 로마 식민지였으며 그리스어도 할 수 있는 동쪽으로 가는 점에서 여러 면에서 로마와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이 54년 그의 죽음으로 자동으로 폐지된 후,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수도 있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Paul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그들 모두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서 그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언급한 지도자들 중 일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름으로 알 수 있지만, 일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헤르메스 신의 이름을 딴 헤르메스와 같은 이름도 포함됩니다.

바울에게는 아폴로 신의 이름을 딴 아볼로라는 동료ja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동료가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Tukay(운명 또는 실제로 우연)의 이름을 딴 Tukikus 와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일종의 주사위 굴림인 Epaphroditus입니다. 따라서 라틴어 이름보다 그리스어 이름이 더 많습니다. 복음이 동부 지방에 먼저 퍼졌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린도에는 더 많은 로마 이름이 있지만 그는 그곳의 일부 로마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교회의 대다수였던 로마에서는 그리스 이름이 있었으며, 지도자 목록을 보면 2세기까지 로마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이름이 계속 발견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3-5절.

바울은 글라우디오가 쫓겨난 후에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와 그 후에 에베소에서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베소에 그와 함께 있었다고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을 동료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동료들의 공통된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9절, 16절, 21절, 고린도후서 8:23, 빌립보서 2:25, 4:3, 골로새서 4:11, 데살로니가전서 3:2,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24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료들에게 사용하는 매우 일반적인 꼬리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신약성서의 여섯 번 중 네 번은 브리스가의 남편 앞에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음, 비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남편보다 먼저 아내의 이름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는 사회적 지위가 높든, 교회에서 지위가 높든, 어쨌든 지위가 더 높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너무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확률의 정도에 따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브리스카라고 불리고, 어떤 곳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불립니다.

Luke는 Priscilla라는 형식을 선호합니다. 바울은 축약형인 브리스가를 선호합니다. 둘 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축약 측면에서 실라스(Silas)와 실바누스(Silvanus)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목을 걸었다, 16:4. 그는 이 기간에 로마인들이 일반적으로 칼을 사용하여 로마 시민에게 행했던 참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가끔 사용했던 것처럼 더 이상 도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용구가 되었고 이 관용어는 수세기 전에 훨씬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생명을 걸고 하는 관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로 도마 위에 머리를 얹는다는 이미지 등은 고대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관용구일 뿐이었다.

여러번 찾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나 에베소에 있을 때 그를 위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에베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0절까지, 41절에서 일어난 일이 바울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큰 폭동이 일어났고 아마도 그곳에서 그들이 그를 위해 목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들 역시 소아시아의 압력으로 인해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를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운동의 지도자이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면서 그들 역시 그 운동에 봉사했습니다. 그는 16장 5절에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주거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도 다층 건물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살았던 집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로마에 있는 집이라면 로마서 16장에서 실제로 집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 교회에서는 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 로마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립 아파트, 다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 다층 아파트는 많이 무너지고 불이 많이 붙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4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 시점에서 있었을 건물들이 많이 전소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1층에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1층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1층에는 종종 상점이 있었습니다. 가끔 가게가 있어서 사람들은 가게에서 잠을 자곤 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가게 뒤쪽에 커튼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게보다 약간 높은 곳에 종이층이 있어서 그곳에서 잠을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윗층, 때로는 윗층 아파트에 있던 모든 공간이 단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대기 근처에서 가장 허약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것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의 경우, 아래층처럼 아파트 내부에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연결하는 긴 복도에서는 가끔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가정교회를 둬으로써 이웃에게도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만난 모든 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돌아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부유한 집에서 더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코노스 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아마도 빌립보서 1:1에 있을 것입니다. 1세기의 집사가 무엇이었던, 2세기의 집사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세기의 자격을 알고 있지만, 다양한 교회 전통에서는 1세기의 자격이 어떠했는지에 관해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나 동료들의 사역을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의 동료들은 여행 동반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뵈뵈에게 이 말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뵈뵈는 바울이 그녀를 칭찬하는 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은 그녀에게 그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경우에는 시너지, 동료 일꾼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부로서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 사이의 문화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이 팀으로 아볼로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언급되는 많은 여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복음 안에서 그와 함께 수고한 것에 대해 그들을 칭찬하거나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할 때,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가 그 용어를 사용할 때,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이 맥락을 포함하여, 그는 자신보다 그들의 사역에 대해 여성들을 더 자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좀 놀랍습니다. 그는 여성보다 남성이 두 배나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자보다 두 배나 많은 남자에게 인사를 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아마도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요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주로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특정 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대다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남성보다 여성을 더 자주 칭찬합니다.

따라서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비례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4배나 더 자주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아마도 그들은 그 문화에서 남자들보다 더 많은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절에 도달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에패 에네도와 마리아, 16절 5절과 6절. Epaenetus 는 목록에 있는 많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이름입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그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행 18절 19절부터 19절 41절)에서 개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한 지역의 첫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곳의 한 신자에 대해 말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가 아테네에서 어떤 개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기술적으로 이 기간에 아가야 지방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그는 아테네에서 개종한 사람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파에네투스 (16:5)와 마리아(16.6)도 마찬가지이다. 로마인들은 이와 같은 이름, 즉 이와 같은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신약성서의 다른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미리암(Miriam)이라고 말하는 다른 방식으로 매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름, 즉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마카베오 공주였던 마리아네 이후로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수많은 마리아, 복음서에서 미리암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12절에서 버시스에 대해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10, 갈라디아서 4:11, 빌립보서 2:16, 골로새서 1:29,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수고를 고린도전서 16:16, 데살로니가전서 5:12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음, Andronicus와 Junia는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7절)는 바울이 말하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들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신자였을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된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들은 특히 그들의 이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아람어로 들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갈릴리 출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유대의 다른 지역 출신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안드로니쿠스는 그리스 이름입니다. Junia는 로마식 이름이다.

그들은 아마도 사도행전 6장과 9절에서 바울이 속해 있었던 회당, 즉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정착한 해방된 사람들인 디아스포라 리베르티니의 회당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회당의 일부라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친척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9장과 3절에서 동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데 더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친족을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또한 이 장의 11절과 21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마도 그들의 동료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을 동료 죄수들로 언급합니다. 그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23절에서와 같이 문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 죄수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골라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자주 투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은 에베소에서 함께 갇혀서 많은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고전 15:32). 어쩌면 그들은 그보다 먼저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가둔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아마도 이것은 남편과 아내일 것이고, 아마도 미혼의 남매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고린도만큼은 아니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남편과 아내일 겁니다. 부부가 아니라면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여행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의 전체 캔을 열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논의할 다음 세션까지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5:29-16:7에 관한 세션 16입니다.